



기후변화 대응형 인삼 품종, 종자 생산·보급 확대 방안 논의

- 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15일 김제 인삼 종자 생산 농가 찾아
- ‘천량’·‘고원’ 품종의 생산 현황 점검, 농업인 의견 들어
- 안정적인 종자 공급 체계 마련, 새 품종 보급 속도 높일 것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7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의 인삼 종자 생산 농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농업인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방문은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기후변화 대응형 인삼 ‘천량’과 ‘고원’의 종자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우수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현장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천량’은 기존 품종(‘천풍’)보다 수량이 약 10% 많고 염류*와 고온에 강해 이상기후 대응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원’은 인삼 지상부 병 가운데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점무늬병’에 강한 특성이 있다.

* 염류: 비료나 퇴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이것이 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토양에 남아 축적됨. 염류는 이렇게 축적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을 의미. 인삼은 염류 농도가 높으면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생육이 위축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됨

농촌진흥청은 전북 김제와 충북 충주에 각각 0.5헥타르(ha), 1.5헥타르(ha) 규모의 종자 생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6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들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김 원장은 농가와 종자 생산지를 둘러보고 올봄 이상고온으로 인한 조기 싹 틈 현상과 최근의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단위 면적당 생산량 감소 우려 등 기후변동성에 따른 종자 생산 관리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에 대한 현장 의견도 이어졌다. 인삼은 재배 기간이 길어, 지금 선택하는 품종에 따라 몇 년 뒤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새 품종을 현장에 더 빨리 보급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이상기상에 강한 우수 품종 재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종자 공급 체계를 구축해 새 품종 보급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인삼 육성 품종 채종포 현장 방문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육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창 (043-871-5600)
		담당자	연구사	하준영 (043-871-5614)
				

□ 개 요

- 일 시: '26. 7. 15.(수), 14:00~15:00
- 장 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산7-4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3:40~14:00	20분	이동 (본원 → 김제시 공덕면)
14:00~14:30	30분	현장 점검, 농가 의견 청취
14:30~14:50	20분	이동 (김제시 공덕면 → 본원)

□ 육성 품종 주요 특성



- ▶ 품종명 : 천량
- ▶ 육성경과
 - 계통선발('03)
 - 품종등록('13)
- ▶ 주요특성
 - 염류저항성
 - 720kg/10a
- * 천풍대비 10% 증수



- ▶ 품종명 : 고원
- ▶ 육성경과
 - 계통선발('03)
 - 품종등록('15)
- ▶ 주요특성
 - 점무늬병저항성
 - 730kg/10a
- * 천풍대비 12% 증수